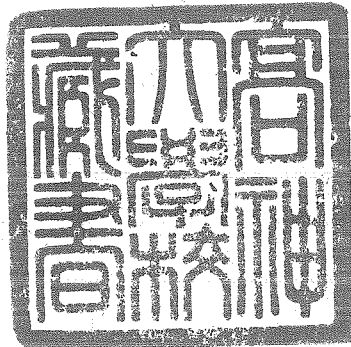


CT
2669
18227
文學碩士學位論文

존 칼빈(John calvin)의
教育思想 研究


指導教授 金 聖 洙



1997년 2월

高神大學校大學院

基督教教育學科

 고신대학교



DM00003419

柳 聖 愛

류성애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교육학박사 김성수 (인)

위원 교육학박사 김용섭 (인)

위원 신학박사 강용원 (인)

고신대학교 대학원

1997년 2월 일

謝 辭

먼저 한국에 와서 기독교 교육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끝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주신 김성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독교 교육학을 배움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김용섭, 강용원 교수님과 지금 미국에 계시는 임창호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학업 연구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동일 교회 이지영 목사님과 이상규 교수님, 그리고 고국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2월 23일

류 성 애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2. 연구 방법	3
II. 칼빈의 생애	5
1. 시대적 배경	5
2. 칼빈의 생애	6
III. 칼빈의 신학 사상	15
1. 칼빈의 신관	15
2. 칼빈의 인간관	19
3. 칼빈의 성경관	26
4. 칼빈의 교회관	30
IV. 칼빈의 교육사상	36
1. 교육의 목적	36
2. 교육의 내용	38
3. 교육의 방법	42
4. 가르치는 교사	44
5. 교육의 대상	52
V. 칼빈의 교육 활동	56
1. 목회를 통한 교육 활동	56
2. 저술을 통한 교육 활동	62
3. 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활동	66
VI. 결론	69
<참고문헌>	74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모든 사람이 주지하는 바이다.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고 강대해지려면 우선적으로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교육 현장은 이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한 개인에게도 더 없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방식과 태도, 인성 등 모든 것이 다 교육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교육은 사회와 개인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 활동 역시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인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인 방향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신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교육도 하나님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 자신을 위하여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먼저 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영생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구속 사역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인간의 모든 삶과 활동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활동은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야 하고, 교육의 목적과 내

용, 방법 등 모든 것이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적인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발전에 공헌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겠지만 칼빈(John Calvin)이야말로 개혁주의적인 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가장 확고한 기초를 놓은 사상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 가장 위대한 개혁주의 사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음적 신앙에 대한 그의 열정적이며 논리적인 확신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모체가 되었고¹⁾,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했다²⁾. 또한 그는 바울, 어거스틴 등 신앙의 선배들의 중요한 교리들을 현대적 적절성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표현한 최초의 신학자로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다져 놓았다. 1541년의 워스(Warms)회의에서 칼빈의 박식과 그의 탁월하고 명철한 신학적 통찰력을 알게 된 멜랑히톤은 칼빈을 “The Theologian”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유일한 신학자”라는 뜻이었다. 조지 하크네스(Georgia Harknes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세기는 놀라운 세기였다. 이 세기는 라파엘, 마이클앤젤로, 스펜서, 셰크스피어, 에라스무스, 라비에, 코퍼니커스, 갈릴레오, 루터, 칼빈의 세기였다. 그러나 이 세기에 위대한 일을 남긴 인물들 중 칼빈보다 더 영구성 있는 업적을 남기고 간 이는 없다.”³⁾

칼빈은 신학자, 목회자, 저술가인 동시에 또한 교육 실천가였다. 그는 비록 교육 사상을 체계화하여 정립한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일을 실천적으로 감당한 교육자였다. 그는 기독교강요의 “독자에게 주는 서신”에서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 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천사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⁴⁾라고 하면서 자신이

1. 정성구, 칼빈의 신학서론 서언,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6), p.18.
2.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정성구, 양낙홍 공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p.266.
3.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31), p.258, Ibid에서 재인용.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Herry Beueridge,

교사로서의 직책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글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다⁵⁾. 칼빈의 제자 중 하나인 존 닉스(John Knox)는 제네바를 가리켜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학교”라고 했다.

칼빈은 신학의 제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며 심도 있게 연구하였지만 교육의 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개진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신관, 인간관, 성경관 등을 포함한 폭넓은 신학 사상과 그의 실천적인 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그의 관점과 사상을 연역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자는 칼빈의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본 연구자의 또 다른 연구 목적은, 이 연구가 중국의 기독교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기독교 학교가 전무하고 기독교 교육학 연구 역시 극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신학교의 수도 적고 그 교육 수준도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진 편이다. 칼빈은 중국의 대부분 신학교와 교회에 있어서 아직도 생소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칼빈의 사상을 중국의 신학교와 교회에 소개함으로써 중국의 기독교 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본 연구자의 자그마한 소원이기도 하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칼빈의 교육 사상의 기초가 되는 신학 사상과 교육 활동에 대한 분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p.25.

5. Ibid.

석, 연구를 통해 칼빈의 교육 사상-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가르치는 교사, 교육의 대상을 위주로-을 탐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적으로 문헌 연구에 의존한다. 칼빈의 저서 중 기독교강요와 기타 성경 주석들, 그리고 칼빈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한다.

II. 칼빈의 생애

1. 시대적 배경

유럽 사회에 있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천년간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중세라고 부른다. 중세(Middle Age)란 용어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에 의해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교회의 제도적 권위에 의해 가려진 암흑과 야만의 중간 시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고, 이 시대에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장이 빨랐다. 가톨릭 교회는 봉건 체제하에서 경제 및 정치에 걸쳐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였고, 중세의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교육과 학문은 오랫동안 성직자들의 수중에서 그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문학과 미술도 가톨릭교회의 이념에 상응하는 내용과 주제를 채택하였다. 모든 지적 활동도 스콜라철학의 영향하에 있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기부터 중세의 특징적인 사회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세의 봉건제도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새로운 요소들, 즉 중앙집권적 국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 등이 나타났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당시 중세사회의 보편적 세력이었던 카톨릭 교회는 내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교황권은 바빌론의 유수(1309-1377)와 대분열(1378-1417)에 의해 타격을 받았고, 교회 안의 타락과 부패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사게 되었다. 특히 교회 의식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기독교적인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더욱 맹렬해졌다. 르네상스(14세기 말엽부터 16세기초에 걸쳐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시대의 기독교적 휴머니스트들은 기독교 초기의 복음적 신앙을 그 순수성에서 부활시키려

는 것을 과제로 삼고 기독교 원본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 대표 인물들로 독일의 로이힐린(Johann Reuchlin, 1455-1522), 프랑스의 르페브르 데타블(Jacques Lefevre d'Étaples, 1455-1536), 영국의 콜레트(John Colet, 1467-1519),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1478-1535), 화란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에라스무스로서 이들의 사상은 종교개혁의 기초를 다져 놓았다. 이런 역사적 조건하에서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카톨릭 교회에서 발행한 면죄부에 반대하여 "95개조"를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였고, 스위스의 쾰링글리(Huldreich Zwingli)도 같은 시기에 목표나 방법에 있어서 루터와 유사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이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프랑스의 노용(Noyon)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2. 칼빈의 생애

1) 칼빈의 출생

존 칼빈(Jean Cauvin)은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북쪽 피카르디(Picardy) 지방에 있는 노용(Noyon)의 한 증산층 가정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⁶⁾. 아버지 제라르 코반(Gerard Cauvin)은 성당 공증인(notary)과 프로모터(promoteur)로서 교회 법정의 서기 일과 주교의 재정 공증인을 맡았고 그의 어머니 잔느 르 프랑끄(Jeanne Le Franc)는 어떤 여관 주인의 딸로서 경건한 신앙생활로 유명했다. 잔느는 샤를르(Charles), 앙트완느(Antoine), 프랑스와(Fransois), 장(존 칼빈), 그리고 또 하나의 앙트완느를 낳았는데 둘째와 셋째는 어려서 죽었고, 잔느도 얼마 안 되어 죽었다. 제라르는 재혼을 하여 두 딸을 보았다.

6.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8), p.10.

장(존 칼빈)은 어려서부터 중세 말의 전형적인 엄격한 가정 교육을 받았다. 그는 신앙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 로마 교회의 엄숙한 의식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고, 성물에 키스도 하였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황제의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다”⁷⁾. 또한 장(존 칼빈)은 어릴 때부터 상류 계급의 자녀들과 접촉하고, 함께 공부했었는데 이중 어떤 이들과의 우정은 끝까지 계속되었다.

2) 칼빈의 학생시절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제라르느 세 아들을 모두 사제로 만들려고 했다⁸⁾. 특히 그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어린 장(존 칼빈)에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장(존 칼빈)은 12세 때에 성직자가 되어 삭발하고, 성직록의 1/3을 받았다. 그리고 까페뜨 대학(Le College des Capettes)의 부속학교에 다녔다. 2년후 장(존 칼빈)은 파리의 라 마르슈대학(College de la Marche)에 입학하였다. 그는 이 학교에서 훌륭한 라틴어 교사인 마투랭 꼬르디에(Mathurin Corcier)로부터 라틴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꼬르디에는 장(존 칼빈)에게 이후에도 라틴어를 계속 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다져 주었다. 칼빈은 마투랭 꼬르디에로부터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⁹⁾, 나중에 제네바의 대학에 꼬르디에를 교수로 초빙했다. 이 시기에 장은 그의 본명을 라틴화하여 Johannes Calvinus라 하였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고쳐서 Calvin이라고 하였다.¹⁰⁾

수개월 후 칼빈은 몽테규(Montaigu)대학으로 전학하였다. 이 대학의 학장 장 스

-
7. John Calvin, The Preface of Commentary on the Psalms, T. H. L. Parker,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p.25-26에서 재인용.
 8. T. H. L. Parker,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26.
 9. Comm. on I Thess. Opera Calvini (Corpus Reformatorum) 13, 525-6; Calvin Translation Society 234, T. H. L. Parker, op.cit., p.32에서 재인용.
 10. 이종성, op.cit., p.13.

탕동(Jean Standonck)은 고대 수도원의 영향을 받아 몽페규대학을 교육하는 수도원, 종교적인 대학, “엄격한 규율 밑에서 사제와 ‘개혁적인’ 수사가 될 준비를 하는 가난한 성직자의 공동체”(루노데, 1494-1517까지의 파리)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즉 이 학교는 장차 신학도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이 곳에서 칼빈은 많은 책을 탐독하였고 라틴어와 중세기의 변증법을 통달하게 되었다. 여기서 배운 지식을 통해 칼빈은 박학해졌고, 중세 교부들의 논리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었지만, 그의 건강은 많이 악화되었다.

칼빈이 이 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구와의 관계가 악화된 제라르는 성직자보다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칼빈에게 있어서 더 성공적이고 부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법학을 공부할 것을 명령했고, 순종적인 칼빈은 곧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¹¹). 문학 석사로 몽페규대학을 졸업한 칼빈은 1528년부터 오를레앙(Orleans)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는 법학뿐만 아니라, 루터의 영향을 받은 볼마르에게 헬라이어도 배웠다. 1529년에 칼빈은 로마법의 권위자인 안드레아 알치아티(Andreas Alciati)가 근방의 부르췌(Bourges)대학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그 대학으로 옮겨갔고 거기에 초빙되어 간 볼마르로부터 계속 헬리아어를 배웠다¹²). 그러나 알치아티가 오를레앙대학의 레트와를 공격했을 때 두 세맹(Nicolas du chemin)이 레트와를 변호하는 책을 출판했고, 칼빈이 그 서문을 써냈는데 이것이 칼빈의 첫 출판물이었다. 이 대학에서 칼빈은 법학 외에 이 학교로 초빙되어 온 볼마르로부터 계속 헬리아어를 배웠다. 1532년 그는 오를레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법학 지식은 나중에 자신의 제네바에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1531년 5월말에 교구와 불화 중에 있던 칼빈의 부친 제라르가 죽었다. 제라르의 죽음은 칼빈의 생애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그해 말까지 그는 왕실 대학(College of Royal Lectures)에서 희랍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했고 그 이후 오를레

11. 이종성, *op.cit.*, p.16.

12. Opera Calvinii (Corpus Reformatorum) 12, 364-5; Calvin Translation Society 100-1, T. H. L. Parker, *op.cit.*, pp.59-60에서 재인용.

앙과 부르주에서 법학 공부를 계속 했다. 1532년 4월에 칼빈은 인문주의자의 입장에서 그의 첫 저서인,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출판하였다¹³⁾. 그러나 이 주석은 그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크게 성공작이 되지는 못하였다.

3) 칼빈의 회심

칼빈이 회심한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그의 회심이 1533년 말에서 1535년 초 사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1533년 11월 1일, 나바르대학의 학장이자 칼빈의 친구인 니콜라 콥(Nicholas Cop)의 개혁 정신을 보여주는 학장 취임 연설 원고를 칼빈이 써 주었는데, 그 내용이 칼빈의 회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558년에 쓴 칼빈의 “시편 주석” 서론과 1539년에 쓴 “사들렛에게 보낸 편지”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¹⁴⁾.

학장 취임 연설 이후 니콜라 콥은 그의 취임 연설로 인해 이단자로 언도를 받고 바젤로 피신하였고, 그의 친구인 칼빈도 고향 노용으로 피신하였다. 그후 그는 친구 듀 툴레(Louis du Tillet)의 집에 머물면서 잠시 중단하였던 연구를 계속하였고,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하였다. 1534년 5월 그는 파리로 가서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와 만나서 삼위일체론에 관해 토론할 약속을 했지만 세르베투스의 위약으로 만나지 못하고 툴레와 함께 망명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먼저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부처(Martin Bucer)를 방문하고 1535년 1월에 스위스의 바젤(Bazel)로 갔다. 여기서 칼빈은 조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할 목적으로 툴레의 집에서 쓰기 시작했던 “기독교강요”를 서둘러 탈고하고 1536년 3월에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을 프랑소와 1세에게 헌정 하였다¹⁵⁾. “기독교 강요”가 출판된 후 칼빈은 툴레와 함께 이탈리아 북부 페라라(Ferrara)에 있는 에콜공비 르네(Renee)왕녀를 방문했다. 그는 여기서 개혁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했으나

13. Jean Cu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을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37.

14. Ibid., pp.42-50.

15. T. H. L. Parker, op.cit., pp.85-90.

교황의 압력으로 인해 다시 바젤로 잠깐 귀환했다가 파리로 갔다.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스트라스부르그에 가서 학구 생활을 계속 하려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당시(1536년 6월) 전화로 인해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는 도로가 차단되었기에 그는 남쪽으로 제네바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고 있던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 칼빈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칼빈을 방문하여 칼빈을 제네바에 머물게 했다¹⁶⁾.

4) 칼빈의 제1차 제네바 목회

파렐은 설교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나 교육면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는 칼빈이 그의 이런 약점들을 채워 주기를 원했다. 1536년 7월에 정식으로 제네바에 온 칼빈은 파렐과 그의 제자 비레(Pierre Viret)와 함께 제네바 시를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칼빈은 설교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단지 파렐의 조력자이며 교사의 직분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만 했다. 1536년 10월 로잔느(Lausanne)에서 로마교의 신학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회의에서 칼빈은 그의 박학한 지식으로 로마교 신학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논박하였다. 이 토론회로 인해 유명해진 칼빈은 설교할 자격을 획득했고, 목사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때부터 칼빈은 파렐과 함께 제네바 교회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칼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고 신자의 훈련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537년 1월 16일 파렐과 칼빈은 의회에 대부분 칼빈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문”(Articles o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을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¹⁷⁾ 신앙의 내용과 교회 생활의 훈련을 위한 방침을 설명했다. 이 조례는 권징을 통한 훈련, 시편의

16. Opera Calvinii (Corpus Reformatorum) 31, 23-6; Calvin Translation Society 1, xlii-xliii, T. H. L. Parker, *op.cit.*, pp.120-121에서 재인용.

17. T. H. L. Parker, *op.cit.*, p.137.

찬송, 자녀의 교육 문제, 혼인에 관한 것 등 네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성찬 집행에 대한 내용이 그 핵을 이루고 있다¹⁸⁾.

칼빈은 또한 제네바의 모든 시민과 거주자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해야만 하는 신앙 고백(The Confession of faith, which all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Geneva..... must promise to keep and to hold)을 1536년 11월 10일에 의회에 제출하였다¹⁹⁾. 21개조로 구성된 이 신앙고백서는 제네바 시민들을 신앙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도 통일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었다²⁰⁾.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되어 왔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a brief and simple summary of the Christian faith)을 작성하여 어린이들이 이것을 공부해서 정기적으로 목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²¹⁾. 이 책은 사실상 기독교강요의 요약으로서 처음에는 문답식이 아니었는데 1541년에 문답식(현존식)으로 바뀌어 개혁 교회의 주요 문헌이 되었고, 특히 개혁 교회 교리문답의 모본이 되었다²²⁾.

그러나 칼빈의 이런 개혁 운동은 반대 세력들의 저항을 받았고, 1538년 부활절에 제네바 의회에서 목사회와의 의논도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베른시의 성찬 의식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식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한 사건으로 인해 칼빈과 파렐, 그리고 그들의 맹인 동역자 코로(Corauld)는 끝내 제네바에서 추방당했다. 파렐은 뉴사텔(Neuchatel)로 향했고 칼빈은 바젤로 갔다가 스트라스부르그에 갔다. 그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연구를 계속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그의 부처와 카피토(Capito)는 그에게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기려

18. 강용원, “칼빈의 교육 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장신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78, p.13.

19. T. H. L. Parker, *op.cit.*, p.138.

20. 이종성, *op.cit.*, pp.30-31.

21. *Ibid.*, p.139.

22.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 사상, (서울: 신교 출판사, 1959), p.41.

간청했다. 그들은 파렐과 똑같은 방법으로 칼빈을 스트라스부르그에 남겨 두었다²³).

5)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칼빈

1538년 9월에 스트라스부르그에 도착한 칼빈은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으면서 주로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였다. 1539년 1월에는 스트라스부르그대학의 신학과 강사로 취임했고, 7월에 시민권을 얻었고, 8월에 “기독교 강요” 제2판을 출판했다. 그는 여기서 스승이자 친구인 부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1540년 8월에 칼빈은 이데레트 드 뷔르(Idelette de Bure)라는 두 남매를 가진 과부와 결혼했다²⁴). 이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출생(1542년 7월)한지 2주만에 죽었다.

한편, 이때 제네바의 상태는 급변해 갔다. 의회에서 칼빈파가 독세하였고 그들은 곧 바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칼빈은 원치 않았지만 또 한 번 파렐의 독촉으로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돌아왔다²⁵).

6) 칼빈의 제2차 제네바 목회

제네바에서 칼빈의 표어는 “자유·질서·훈련”이었다²⁶). 칼빈은 이미 자유를 획득했기에 이제부터 질서와 훈련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네바에 온지 며칠 안되어 그는 1541년 9월 16일에 “제네바 교회 헌법”(Les Ordonances Ecclesiastiques de l' Eglise de Geneve)을 제정하여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것의 실행을 감독하는 감시 위원회(Consistorium)를 조직했다. 또한 어린이 교육을 위해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에 근거하여 11월말에 대화식으로 된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문답서는 또한 청년들의 지적 수준에 적

23. 이종성, *op.cit.*, pp.36-37.

24. Richard Stauffer, *L'humanite de Calvin*, 박건택 역, 남편·아버지·친구·목회자로서의 인간칼빈, (서울: 정음 출판사, 1983), p.31.

25. *Ibid.*, p.79.

26. 이종성, *op.cit.*, p.42.

용된 하나의 교육적 저술이며 교리서이다²⁷⁾).

칼빈은 교회 조직을 초대 교회의 조직에 따라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 네 직분(엡4:11)으로 나누었다. 목사는 목사 협의회(목사단)를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협의회를 갖는다. 교사의 임무는 교리를 순수하게 지킬 것과 성도들을 가르치며 신앙 연구에 노력하는 것이다. 장로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 전반을 돌보고 감독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다. 집사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회계를 맡아보는 일과 곤핍한 사람을 돌아보는 집사가 있다²⁸⁾).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칼빈의 엄격한 훈련은 일부 반대파들의 당연한 반대를 받았다. 1543-1544년의 카스텔레오(Sebastian Castellio)사건, 1546년의 피엘 아모(Pierre Ameaux)사건, 1547년의 작 그류(Jacques Gruet)사건, 오래 동안 칼빈을 괴롭힌 페랑(Ami Perrin), 그리고 1553년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사건 등이 이를 잘 증거 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반대와 투쟁은 모두 칼빈의 승리로 끝났고 반 칼빈파는 다시 머리를 쳐들지 못했다. 제네바가 평화를 되찾은 후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 생활의 질서와 기율을 유지하는 일, 제네바 시내에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건설하는 일, 그리고 여러 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민족과 국경을 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전력하였다.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느낀 칼빈은 일찍 1541년부터 학교를 세울 것을 소원했으나 그의 적들과의 투쟁 때문에 1559년 6월에 가서야 비로소 제네바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 대학교의 교육은 schola privata(지금의 중·고등학교)와 schola publica(지금의 대학) 등 두 과정으로 이루어졌다²⁹⁾. 칼빈은 많은 유명한 학자들을 이 학교로 초청하였고, 그 자신도 이 학교에서 교수직의 공식적인 직함은 가지지 않았지만 신학을 가르쳤다. 칼빈은 이

27. Jean Cudier, *op.cit.*, pp.132-134.

28. 이종성, *op.cit.*, p.43.

29. Jean Cudier, *op.cit.*, p.189.

제네바 대학교를 건설함으로써 제네바를 정신적으로 통일시켰고, 개혁 사업의 기반을 더욱 견고케 했으며, 나아가 프랑스 전역과 전 유럽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개신교의 신앙 원리와 실재를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나갔다. 칼빈은 또한 개혁 교회의 통일을 위해 루터파와 쾰링겐리파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육신은 많이 쇠약해졌다. 교회의 개혁과 교육 활동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허약해진 칼빈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1564년 5월 27일 이 위대한 개혁자는 제네바의 그의 사택에서 하나님 앞으로 갔고, 장례식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집행되었고 비석도 세우지 않았다. 종교 개혁자 칼빈의 삶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이었고, 그의 삶 전체에 걸쳐 “Soli Deo gloria!”를 실천한 위대한 개혁자였다³⁰).

30. 이종성, *op.cit.*, p.66.

III. 칼빈의 신학 사상

1. 칼빈의 신관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종결된다. 그의 신학 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의 온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 사상에 압도되어 있다. 칼빈의 이 사상은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과 사상에 근간과 골격을 이루고 있다³¹⁾. 칼빈은 1542년에 출판한 “제네바 교회 신앙 문답서”의 첫 문답에서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자신에 대해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이 두 지식은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 내는지를 식별하기 어렵다³²⁾

1) 하나님의 자기 계시

칼빈은 하나님을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첫째는,

31. 황성철,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 신학 연구”, 총신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79, p.30.

32.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I. i. 1.

자연적인 것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둘째는, 초자연적인 통로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³³).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³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선천적이며³⁵)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³⁶). 이 지식이 선천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본래적, 본질적, 본능적, 생득적인 지식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을 정도의 야만인은 존재치 않으며, 완전한 무신론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불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다³⁷).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야만인이나 무신론자나 완악한 자들의 주장은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필연적인 공포를 감추려는 공허한 노력이며, 이러한 공허한 노력들이야말로 인간이 창조의 원상태에서 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다³⁸).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선천적 지식-내적 계시 (ineradicable revelation)-을 주심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분명하고 풍성한 계시를 주셨다. 이 계시는 바로 자연과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이다³⁹).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를 뿌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계의 전 구조 안에서 나타내시며 매일 여러 공중의 눈앞에 나타내시므로 그를 쳐다보지 않고는 눈을 뜰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⁴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 수 있게 하는 계시와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은 자연계와 역사로 구분 지을 수 있다.

33. 이종성, *op.cit.*, p.82.

34. *Inst.*, I. iii. 1.

35. *Inst.*, I. iii. 3.

36. *Inst.*, I. iv. 4.

37. *Inst.*, I. iii. 3.

38.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Grand Rapids: Baker, 1974), p.29.

39. *Ibid.*, p.39.

40. *Inst.*, I. v. 1.

칼빈에 의하면 우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책”(욥9:7-15)이고, “극장”⁴¹⁾이며 “거울”⁴²⁾이다. 하나님은 불가견적이고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걸음을 통하여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신다⁴³⁾.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때로는 공의가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실현을 연기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⁴⁴⁾. 결국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비와 공의로써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의 하신 일 가운데서 그림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인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도록 권함을 받고 있다⁴⁵⁾.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하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자기현현은 그토록 명백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⁴⁶⁾.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파괴되었다. 종교의 씨가 심령 속에 뿌려졌지만 그 씨가 죄로 말미암아 썩어 자라지 못하고, 인간 심령 속의 영적 지혜의 불빛은 꺼졌고, 따라서 자연 계시를 통해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인식 능력은 둔화 또는 상실되었다⁴⁷⁾.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무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고의적인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고 미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 자기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사악한 행위와 위선 등에 의해 왜곡되었다⁴⁸⁾.

41. *Inst.*, I. v. 5.

42. *Inst.*, I. v. 11.

43. *Inst.*, I. v. 1.

44. 이종성, *op.cit.*, p.88.

45. *Inst.*, I. v. 10.

46. *Inst.*, I. v. 1.

47. *Inst.*, I. v. 2.

48. *Inst.*, I. iv. 1-4.

이처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특별 계시-을 통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소유할 수 있다.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한 확증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⁴⁹). 칼빈은 시편 145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첫째로, 자비하시고; 둘째로, 심판자이시고; 셋째로, 정의로우시다는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⁵⁰).

2)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에 관한 칼빈의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가지는 그의 삼위일체 교리이다. 칼빈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 하나님은 세 실재(hypostasis)의 통일체이며, 그 세 실재가 통일됨으로서 한 품격이 성립되어 비로소 삼위일체가 된다고 가르쳐 준다⁵¹). 특히 칼빈은 엡4:5과 마28:19을 보다 확실한 삼위일체의 증거로 본다. 삼위격의 차이점에 대해 칼빈은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고; 성령은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된다고 본다⁵²). 칼빈의 삼위일체 개념의 특징은 단순성(simplification), 순수성(clarification), 등등성(equatization)이다⁵³).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으로서의 자존성, 공재성의 강조,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인격을 주장함이 칼빈의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다⁵⁴).

49. *Inst.*, I. viii. 13.

50. *Inst.*, I. x. 2.

51. *Inst.*, I. x iii. 5.

52. *Inst.*, I. x iii. 18.

53. B B. Warfield, *op.cit.*, p.230.

54. *Ibid.*, p.243.

2. 칼빈의 인간관

교육의 이론과 실천적 활동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실상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빈의 인간관은 성경에 그 근거를 둔 인간관으로서 세속적인 인간관과 현저하게 다르다. 칼빈은 인간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쪽이 먼저이고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 내는 가를 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 자신에 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은 무지한 인간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마치 손으로 이끄는 것처럼 인간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한편,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⁵⁵). 칼빈의 이런 견해는 그의 사6:5의 주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사람이라 생각지 않고 차라리 신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됄을 알기 시작한다⁵⁶). 그는 또한 인간의 존재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칼빈은 인간의 전 존재의 의미와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자신의 이러한 인간관을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이중적 구조로 자세하게 논술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인간이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지식이고; 둘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였는

55. *Inst.*, i. 1, 2.

56. 이용삼, “칼빈의 인간 이해”, 연세대 연신원 석사 논문, 1969, p.14.

가 하는 지식이다.

이제 이와 같은 총괄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칼빈의 인간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칼빈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칼빈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이 부분을 가끔 “영”(spiri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 마음의 민첩함은 천지와 자연의 비밀을 찾아내며, 이해와 기억으로 모든 시대를 알고 모든 사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과거사에서 미래사를 추론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육체와는 분리된 어떤 무엇이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해하지만, 육체는 전혀 그러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옳은 것과 의로운 것,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파악하지만, 이것들은 육체적 감각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영은 틀림없이 이 지성의 좌소이다. 바울도 우리가 육신에 그대로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과는 떠나는 것이요, 육신에서 떠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게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이 점을 확인하였다(고후5:6,8)⁵⁷⁾. 칼빈은 또한 영혼은 오성(또는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던가 시인하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한편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며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이다⁵⁸⁾.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1:27)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 좌소

57. *Inst.*, I. x v. 2.

58. *Inst.*, I. x v. 7.

가 영혼에 자리잡고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외형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형상”(imaga)과 “모양”(likeness)에 관한 많은 논쟁에 대해 칼빈은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설명을 위해서 “모양대로”라는 말을 추가하여 동일한 관념을 반복한 것이라고 본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넣으심으로써 그 형상 안에서 자신을 반사하려 하셨던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감정을 이성애 종속시켰고,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그때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선적으로 깃들여 있는 곳은 정신과 마음, 또는 영혼과 영혼의 능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가 얼마만큼이라도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한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위치할 때 인간을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높이는 것, 곧 인간을 일반 피조물로부터 구별시키는 무언의 대조가 있다고 보고 있다⁵⁹).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정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회복에 관한 언급에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아담이 그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그는 이 변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러한 이탈로 말미암아 비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악하게 일그러졌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회복의 시초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본래의 순결한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이유에서 제2의 아담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제1차적인 것이 창조 자체에 있어서도 역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갱신에 대해 첫째

59. *Inst.*, I. x v. 3.

로는 지식을 말하고,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완전성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과 같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⁶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적 속성의 완전한 탁월성으로, 이것은 타락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부패하여 몹시 손상되고 거의 도말 되어서 혼란 되고 훼손되고 부패된 것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선택된 자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생한 자에게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광채를 발하게 될 것이다⁶¹).

2) 타락한 인간

아담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원래의 선한 상태가 부패하였다.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었다는 어거스틴의 말에 칼빈은 동의한다. 사람이 야심으로 자기의 마땅하고 바른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원래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이다.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였다. 바울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친다(롬5:19). 동시에 주목해야 할 점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한 것은 그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뿐 아니라 진실을 멸시하고 허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의 존엄 또한 더 이상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인간의 경배도 여전히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타락의 근본이었다⁶²).

60. *Inst.*, I. x v. 4.

61. *Inst.*, I. x v. 4.

아담이 그의 창조주에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영적 삶이었던 것과 같이, 창조주에게서 떨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를 위배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파멸되게 되었고,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도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분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롬8:22),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롬8:20)⁶³. 아담의 죄로부터 흘러 퍼져 우주 전체에 편만한 이 저주는 또한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졌다. 이것은 물려받은 유전적 부패이며, 이것을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원죄”라고 불렀다(롬5:12). 원죄는 최초의 죄로서,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고,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며, 성경에서 “육체의 일”(갈5:19)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⁶⁴.

아담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며,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온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시킨다⁶⁵. 그러나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 본성의 타락이다.⁶⁶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내재한 기본적 소유가 아니라, 우발적인 외래적인 것이고 인간이 부패한 것은 생래적 죄 때문이지, 그 악은 본성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느 부분이 남아 있다. 칼빈은 이 주장을 자연 은사와 영적 은사로서 설명하였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영적 은사는 소멸되었고, 자연 은사는 부패했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⁶⁷.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 은사로서 이것은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해가 남았다. 마찬가지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뗄 수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62. *Inst.*, II. i. 4.

63. *Inst.*, II. i. 5.

64. *Inst.*, II. i. 5.

65. *Inst.*, II. i. 9.

66. *Inst.*, II. i. 10.

67. *Inst.*, II. ii. 12.

만, 사악한 욕망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어 바른 일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칼빈은 영혼을 오성과 의지로 구분하였다. 인간의 오성은 원래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에 어느 정도의 지각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잔리를 추구하며 발견할 능력이 없다⁶⁸⁾. 하지만, 오성의 노력이 아무 결과도 없을 정도로 항상 무가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적 충동에 의하여 사회 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학술과 공예에 관해서도 인간은 모두 이것을 배울 만한 어느 정도의 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인간의 총명이 나타난다. 칼빈은 이 일들을 “땅의 일”이라고 보고 이 일들에 관한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하늘의 일-하나님과 진정한 의의 본성과 하늘 나라의 신비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은 전연 맹목적이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즉 영적인 일들에 관해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이다.

인간에 의지에 대하여 칼빈은 어거스틴(Augustine)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여러 학설을 반대하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되어 있으므로 사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욕할 수 없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서는 선을 향하여 노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느낌을 가질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⁶⁹⁾. 만약 인간이 때때로 선을 보여 준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식과 기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내적으로 완악함에 노예가 되어 있다⁷⁰⁾.

칼빈은 인간의 의지를 말에 비교하고, 기수를 하나님과 마귀에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이 타시면 바른 길로 가고, 마귀가 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어거스틴의 비유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은총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은 선행을 위한 자

68. *Inst.*, II. ii. 12.

69. *Inst.*, II. iv. 1.

70. *Inst.*, II. v. 19.

유 의지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⁷¹). 의지(arbitrium)란 말은 선악을 식별하는 직책을 가진 이성과 관계가 있고, 자유로운(liberum)이라는 형용사는 좌우 어느 쪽이든 택할 수 있는 의지에 속하는 것이다. 은혜라는 전제 없이는 이 자유의지는 악을 택할 자유만을 가진다⁷²). 의지는 타락전 아담이 가졌던 자유와 타락한 인간의 자유, 그리고 성도의 의지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참된 자유가 보장되도록 명령받았다. 즉 순종이 곧 자유였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잃어 버렸다. 타락한 인간은 이성의 우매와 마음의 부패로 인하여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을 통하여서만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다. 확실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한다⁷³).

3)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남아 있다. 그러나 그 부패가 너무 심하여 남아 있는 형상까지도 그 모양을 잃은 채 기형이 되어 버렸다. 이런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을 통해서만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무질서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물의 질서가 회복된다⁷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객관적인 표현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며, 모든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은 닮음(likeness)이 된다⁷⁵). 요10:30, 14:8-9, 고후4:4, 골1:15, 히1:3등에서도 그리스

71. *Inst.*, II. iv. 1.

72. *Inst.*, II. ii. 4.

73. *Inst.*, II. iii. 13.

74. *Inst.*, III. ii x v. 2.

75.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Grand Rapids: Wm. B.

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 한다.) 3.17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다. 즉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화해자 (reconciler)가 되신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요14:6).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이 존재할 수 없다⁷⁶⁾.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다. 왜냐 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으며⁷⁷⁾ 이런 분만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참으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었다⁷⁹⁾.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중생은 우리의 믿음에서 온다. 그런데 이 믿음까지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칼빈은 역설한다⁸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게 된다.

3. 칼빈의 성경관

칼빈의 사상은 철저하게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칼빈의 연구가 H. Bauke에 의하면 칼빈은 철저한 성경주의자로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에 보이는 일견 상반된 주장들을 성경적 원리에 의하여 통합하는 상반통합주의의 입장을 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⁸¹⁾. 칼빈 자신도 “나 요한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 있어

Eardmans Pub. CO., 1974), Vol. III. p.1451. 장화선, “John Calvin의 인간 이해와 교육”, p.32에서 재인용.

76. Inst., II. vi. 4.

77. Inst., II. xii. 1.

78. Inst., II. xii. 3.

79. Inst., II. xii. 4.

80. Inst., II. iii. 8.

서 신언의 목사이다”(CR. 20, pp.299)⁸²⁾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정당한 교리에 관해서 매우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고정된 원리라고 생각하였다⁸³⁾.

칼빈은 또한 그가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잡이로 사용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본 저서에서 내가 의도하는 것은 신학 공부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언을 읽도록 하여 이를 교육하고자 함이요, 따라서 이들이 신언에로의 정도를 발견하며 방해를 받는 일이 없이 계속 신언 안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Niesel: Opera Selecta Calvini, 3,6,18)⁸⁴⁾. 칼빈은 그 누구도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⁵⁾.

1) 성경을 주신 목적(성경의 기능)

하나님은 비록 인간에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형체 위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형상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효과 있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보조로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기를 열망한다면 이 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 진실 되게 그리고 생생하게 인간에게 묘사되며, 또 이 사역들은 인간의 타락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의 척도에 의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 나간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갈지라도 이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결코 골인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⁸⁶⁾. 즉 성경

81. 노의일, “칼빈의 교육 사상이 서구 근대사회의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 연세대 석사 논문, 1974, p.53.

82. 이종성, *op.cit.*, p.71.

83. *Inst.*, I. vi. 2.

84. 이종성, *op.cit.*, p.78.

85. *Inst.*, I. vi. 2.

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보존케 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주신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또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주는 빛나는 거울이다⁸⁷⁾. 인간의 마음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한 도움과 뒷받침이 없는 한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⁸⁸⁾. 성경은 마치 시력이 어두운 노인이 책을 분명히 읽기 위해 쓰는 안경과도 같아서 성경이 없이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모아 주고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어 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준다.⁸⁹⁾.

성경은 또한 성령의 학교로서, 거기에는 알아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⁹⁰⁾.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탁의 총체이다.

2) 성경의 기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구수하시는 대로 받아 쓴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공증인이나 성령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성서 기자들은 자기들의 느낌을 말하거나(ex suo sensu), 인간적인 충동(humano impulsu)이나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arbitrio suo)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분부된 것만(quae coelitus mandata fuerant) 기록한 것이다. 여러 기자들이 성서의 각 부분을 기록했다 해도 원 저자는 한 분 이시다. 그것은 사람을 통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우리에게 온 것이며 (Abipsissima Dei ore ad nos fluxiss. I. vii. 5) 여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 않다(necquidquam humani habet admistum, 딤후3:16주석)⁹¹⁾.

86. *Inst.*, I. vi. 3.

87. *Inst.*, I. viii. 7.

88. *Inst.*, I. vi. 4.

89. *Inst.*, I. vi. 1.

90. *Inst.*, III. x xi. 3.

성경의 기록 방법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기록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거기서 찾으시기를 좋아하셨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율법에 첨가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역사가 기록되었다. 그것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역사이다⁹²). 다음에는 신약성서가 따른다. 신약성서의 기자들도 성령의 확실한 필기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글도 하나님의 신탁이다⁹³). 즉 성경 기자들은 성서를 기록할 때 자기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다.

3) 성경의 권위

워필드(B. B. Warfield)는 칼빈의 위대함이 성경의 권위를 바로 깨달은 데 있다고 보았다⁹⁴). 칼빈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는 당시 로마교회의 교리를 반대하면서 성령께서 성경 중에 선지, 사도, 그리고 사도의 후계자들에게 입혀 주신 권위는 그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에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맡게 된 것은 그들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입을 대신하여 말씀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⁹⁵). 그들은 주의 말씀 위에 어느 것도 말해서는 안된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성서의 정경성을 인정하고, 교회가 성서의 원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칼빈은 이 주장에 대립하여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고 칼빈

91. 이종성, *op.cit.*, p.73.

92. *Inst.*, IV. viii. 6.

93. *Inst.*, IV. viii. 9.

94. B. B. Warfield: "Calvin and Bible",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I. ed., John E. Meeter, Nutl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401-406. 노의일, *op.cit.*, p.27.에서 재인용.

95. *Inst.*, IV. viii. 2.

은 믿었다.

칼빈에 의하면 성서는 두 가지 신적 권위, 즉 하나님의 구수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성경 기자는 자기의 말이나 경험이나 느낌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모든 인간의 노력과 결정인 일반 저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⁹⁶).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이 무사하게, 손상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또한 이 책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령한다. 이 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망단해서는 안된다”⁹⁷). 동시에 성경의 말씀은 언제든지 성령의 증거로서 살아 있는 말씀이 되고 시대에 따라 신자에게 새 생명과 힘을 준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직접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역할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죽은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이다⁹⁸).

칼빈은 성경의 권위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과, 성령의 내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하였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의 이런 주장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독자적 권위 (self-authenticating)에 의존하였다⁹⁹).

4. 칼빈의 교회관

96. 이종성, *op.cit.*, p.77.

97. *Inst.*, I. vii. 1.

98. 이종성, *op.cit.*, p.77.

99. 황성철, *op.cit.*, p.30.

1) 교회의 필요성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축복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또는 경박한) 우리들에게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면서(엡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선 성례를 제정하셔서 성례에 참가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강화하는데 매우 유익한 보조 수단임을 체험한다.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직 천사들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의 능력에 정당한 방법을 취하셔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길을 지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¹⁰⁰).

2)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 또한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는 장차 기업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또한 보편적이다.

100. Inst., IV. i. 1.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고전1:13참조)-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1:22-23참조) 한 머리를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롬12:5, 고전10:17, 12:12, 27)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4:16).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르심은 영생을 다 같이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엡5:30)¹⁰¹).

3)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 즉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이다. 불가견적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¹⁰²). 이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¹⁰³).

가견적 교회는 지상에 있는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교회이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직을 보존한다. 이런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전연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 관련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히 여기며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¹⁰⁴).

101. Inst., IV. i. 2.

102. Inst., IV. i. 7.

103. Inst., IV. i. 7.

104. Inst., IV. i. 7.

가견적 교회에 관한 논의에서, 칼빈은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⁵). 교회를 어머니에게 비유한 것은 칼빈의 교회관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은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마22:30) 보살피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있어야 하고, 이 학교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사37:32, 율2:32, 겔13:9), 진정한 경건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교회)의 시민으로 등록된다(사56:5, 시87:6참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¹⁰⁶).

4) 교회의 성직

하나님께서서는 아무 도움이나 연장이 없이도 사역을 친히 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 수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일하셨다. 그 첫째 이유는, 인간에게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세상에서 그의 사자가 되기 하시고(고후5:20), 그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시며, 그를 대표하게 하신다. 둘째 이유는, 우리의 겸손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의 보화를 약한 질그릇에 숨기신 것은(고후4:7) 우리가 얼마나 그 보화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 셋째 이유는, 사람들을 결합해서 상호간의 사랑을 보다 바르게 양육하는 끈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것은 곧 한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제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입에서 공통된 교훈을 받는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각

105. *Inst.*, IV. i. 4.

106. *Inst.*, IV. i. 4.

각 자기만으로 충족해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인간은 이렇게 교만하다) 서로가 남을 멸시하고 또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한 끈으로 묶으시고 이것이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힘있는 수단이라고 예견하셨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기시키고 그들의 손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신 것이다¹⁰⁷).

이미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회의 성직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 네 개 직으로 나누었다¹⁰⁸).牧사는 가장 중요한 직무로서 말씀 전파와 성례의 집행 그리고 교육 훈련을 담당하였고¹⁰⁹), 교사는 성경 해석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순수한 교리가 유지되도록 하였는데¹¹⁰) 이 두 직이 가장 필요 불가결하였고, 근본적이었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육 훈련을 실행하였고¹¹¹), 집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직무를 맡았다¹¹²).

성직의 선정에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말도록 하는 신적 근거와,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선출하는 인간적 근거가 있다¹¹³). 신자들의 선택은 신적 근거에 제한되는 것이기에¹¹⁴) 그 선정은 하나님의 소명에 의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성직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5) 교회의 표지와 권위

교회의 표지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107. *Inst.*, IV. iii. 1.

108. Philip Edgcumbe. Hughes: ed., and tr.,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1966, p35.
황성철, *op.cit.*, p.61에서 재인용.

109. *Inst.*, IV. iii. 4.

110. *Inst.*, IV. iii. 4.

111. *Inst.*, IV. iii. 8.

112. *Inst.*, IV. iii. 9.

113. *Inst.*, IV. iii. 10.

114. *Inst.*, IV. iii. 12.

복을 받아 반드시 결실이 있으며 또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¹¹⁵⁾.

교회의 권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결정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의 여러 가지 법규를 규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신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권징하는 일이다¹¹⁶⁾. 첫째 권위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권위를 통해서 교회는 법규를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규칙에 따라 신자들이 정당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관련된 우리의 영적 자유가 전적으로 보존되게 할 수 있다¹¹⁷⁾. 물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전부가 옳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신자의 성회에 있어서 모든 일이 합당한 예절과 품위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 모임이 정중과 온건의 때는 줄로 굳게 되어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고 하였다¹¹⁸⁾. 셋째로 영적 권징은 신앙 생활의 훈육에 그 목적이 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권한을 가지고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고 이단자를 파문할 권한을 가졌다¹¹⁹⁾.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첫째로, 이 영적 권한은 무력의 권한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둘째로,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모임을 위하여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¹²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도에서 이탈하고 어둠에서 헤매이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¹²¹⁾.

115. *Inst.*, I. i. 10.

116. 이종성, *op.cit.*, p.142.

117. *Inst.*, IV. x. 1.

118. *Inst.*, IV. x. 28.

119. *Inst.*, IV. xi. 1.

120. *Inst.*, IV. xi. 5.

121. *Inst.*, IV. xi. 3.

IV. 칼빈의 교육 사상

1. 교육의 목적

교육은 명백하게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다. 그 목적이 의도적이건 무의도적이건 간에 교육은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교육 목적이 없이는 교육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 교육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사실상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모든 활동들을 결정한다. 그러면 칼빈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그가 작성한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집례자-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습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집례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학습자-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집례자-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은 무엇이니까?

학습자- 위에서 대답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¹²²⁾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첫째 되는 목적, 곧 궁극적인

122.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p.37.

교육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칼빈의 이 교육 목적은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장이나 교수들이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이 선서하기를 요구했던 사실을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이 극도의 절제와 정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시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¹²³⁾

제네바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칼빈은 종교교육 못지 않게 일반 교육을 중시했다. 왜냐 하면 일반 학과는 하나님의 지식을 충분히 알도록 돕는 기초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신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확고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정당한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예술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리고 예술로부터 경험되어지거나 유래되어지는 이익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¹²⁴⁾ 즉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의 이 교육 목적은 매우 총괄적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된다. 과거에는 문화유산으로, 현재에는 오늘날의 필요와 요구로서,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소명으로 주신 직업에 대한 준비로 각각 적용된다¹²⁵⁾.

칼빈의 이런 교육 목적은 또한 학생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문화적, 직업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¹²⁶⁾.

123. John Calvin,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VIII, trans. by W. Stanford Reid (1955. 11), p.33.

124. Elmer L.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1975), p.217.

125. 김용섭, op.cit., p.80.

126. 고용수, op.cit., pp.104-105.

영적인 삶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각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양육하고, 이 봉헌의 온전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영적인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구현되고 발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적인 삶은 오랜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혜 및 자연과 생생하고도 의미 있게 만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리에 대한 탐구 정신을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개발해 주어 그들이 바르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육적인 삶은 학생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습관과 기능을 개발해 주고 증진시켜 주며 생활화해 주는 것이다. 문화적 삶은 학생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식별력을 개발하고, 유산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직업적 삶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며, 특히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것이다.

2. 교육의 내용

칼빈에 의하면 교육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학생도, 교사도 아닌 하나님이다. 즉 기독교적인 교육은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칼빈은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체 창조 세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교과과정으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육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지식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비록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죄로 전복되었기에 자신의 힘으로

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하나님의 말씀-를 통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그 실제적인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은 칼빈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과서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헛되거나 무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나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⁷⁾. 성경은 또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과서이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로서 그 안에는 알아야 하고,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도 빠짐 없이 다 기록되어 있으며,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¹²⁸⁾. 칼빈은 인간의 정신은 무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으며¹²⁹⁾,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빛나는 거울¹³⁰⁾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보았다. 이점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성경은 단지 우리의 생활을 그 창조자요, 또 그것을 묶고 있는 하나님께 속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의 참 근원과 창조 때의 원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는 것을 가르친 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화해되게 하여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우리 앞에 세워 주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¹³¹⁾ 누구든지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¹³²⁾, 성경의 제자는 성령을 통하여 교과서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성경은 다만 과학적 교과목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게 하고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믿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에 몸을 맡긴 사람은 그 지식을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127. Comm. on Rom. 15:4.

128. Inst., III. x xi. 3.

129. Inst., I. vi. 1.

130. Inst., I. viii. 7.

131. Inst., III. vi. 3.

132. Inst., I. vi. 2.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교육 내용을 성경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진실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과목을 다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그의 교육 실천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가 사립학교를 위해 만든 커리큘럼에는 주로 라틴어, 희랍어, 불어, 수사학, 논리학 및 성서 중에서 선택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다¹³³). 제네바 아카데미의 대학부는 히브리어, 희랍어, 도덕철학, 물리학, 수사학 및 성서 중에서 선택된 몇 가지 책들로 그 연구 과정을 구성하였다¹³⁴). 제네바 아카데미는 또 라틴어와 불어 모두에 철저한 지식을 요구했는데 모국어인 불어도 고전어인 라틴어만큼 중시하였다¹³⁵). 이외에도 수사학이나 신학 같은 과정을 학생이 교회와 시민 정부에서 책임 있는 일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그러한 일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천적이고 직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칼빈은 또한 성경의 빛에 의하여 해석되어진 인간의 축적된 문화 활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커리큘럼 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칼빈은 물리학과 수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모든 인간 문화 활동의 의미 있는 국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물리학과 수사학에 일주일에 3시간을 할애하였다. 이에 대해 레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칼빈은 자연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부단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옷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에서 만이라도 물리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확신했다. 창조의 이상을 강조하면서 그는 인간이 조물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부동의 운동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존재의 연결 고리' 속에서 물질 세계는 단지 아주 낮은 차원에 속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스킨라주의 견해

133. John Calvin,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op.cit.*, pp.26-28.

134. *Ibid.*, pp.31-32.

135. W. S. Reid,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1955).

나, 대체로 범신론의 경향을 보였던 르네상스의 견해와는 모두 구별되었다. 칼빈에게 있어 자연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책임이었다¹³⁶).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하나님 중심의 우주관에 기초하여 모든 교육과정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칼빈은 먼저 성경의 절대적인 위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경은 모든 교과과정의 기초가 되며 기타 모든 과목들은 이 성경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 즉 참된 학문은 이 계시된 진리에 의해 지시되고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이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다음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과목을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였다. 이 과목들은 넓게는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음악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역사학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및 그의 계획대로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섭리를 보며, 지리, 물리, 천문학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 세계를 봄으로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학과목을 통하여 배우되 그 최종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칼빈에 의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통일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각 연구 과정은 비록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연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교육 과정은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교육 과정은 성경의 조명 아래 항상

136. *Ibid.*, p.15.

새로운 자료의 총괄성을 향해 계속 열려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도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과 연관된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달란트)과 소명에 따라 자신에게 유용한 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의 방법

칼빈은 비록 평생을 교육자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지만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나 허만 혼(H. Horn) 등과 같이 교육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나 교육사상가는 아니었다. 칼빈은 오히려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가였다. 이 사실은 그의 교육 방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칼빈은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의 교육 방식대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교육 활동을 통해 교육의 방법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칼빈은 그 당시의 주입식, 단계식 교육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특히 그는 단계식 교육 방법을 많이 권장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데살로니가 강해”를 한 때 그의 라틴어 교수였던 Mathurin Cordier에게 헌정 하면서 쓴 헌사에서 잘 나타난다. “... 그리하여 제가 선생님에게서 학습의 진정한 방법을 따라 훈련을 받은 덕분에 후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명성 높은 라틴 학도로 자처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제1급 반을 선생님께서는 맡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다른 선생들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훈련받았다는 학생들이 허울 뿐이요 알맹이가 들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시고 선생님께서는 아예 초보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부담에 피곤을 느끼셔서 그 해에 선생님께서는 제4급 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자신이 목적하신 바였습니다만 제게 있어서는 훈련의 첫 시작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배운 원칙을 나 혼자서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¹³⁷⁾ 칼빈의 이러한 교육 방법에 대한 강조점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운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은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¹³⁸⁾.

칼빈은 문답식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에서 잘 나타나 있다¹³⁹⁾. 제네바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있어서, 칼빈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시편을 노래부를 것”과 “주기도문과 신앙고백, 십계명을 불어로 암송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연설이나 작문을 준비해야 하고, 논문을 준비해야 하며, 자신과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로 부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¹⁴⁰⁾. 여기서 우리는 진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이성적, 도덕적, 영적 존재로서 교육의 자료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그것에 참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아주 중시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교사의 인격은 아동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만일 교훈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교사 자신의 인격의 자연적 표출이 곧 방법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사의 인격과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이다. 한편으로 방법은 교사의 방법인데 좋은 방법과 교사 자신의 인격의 동시적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과정으로서의 방법은 학습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옳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살아 있는 인격의 표현을 통해서만 역동

137. 이종성, *op.cit.*, p.33.

138. 이 부분은 “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활동”을 참고하라.

139. 이 부분은 “저술을 통한 교육 활동”을 참고하라.

140. John Calvin,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op.cit.*, pp.23-32.

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¹⁴¹⁾

칼빈의 교육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한 방법이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행동 법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육의 방법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성경의 조명 아래 평가받고 재해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4. 가르치는 교사

1) 교사로서의 하나님

칼빈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유일의 교사이며 영원한 학생인 인간에게 교과서와 학교로서의 성경을 주셨으며,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¹⁴²⁾

그러면 교사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칼빈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교사로서 묘사하였다. “하나님은 세상을 형성하신 것같이 그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그의 지혜로서 다스리시고, 그의 은혜로서 보존하시며, 특히 공의와 심판으로 인류를 주관하시고, 자비로 용서하시고, 보호로서 방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과 지혜와 공의와 권능, 정직, 참된 진리 어느 하나라도 극히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141. C. Jaesma,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Grand Rapids: Eerdman, 1935), p.165.

142. Inst., p.141.

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일을 그로부터 바라고 구하고 무엇이든지 받는 것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함으로써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완전한 권능을 갖고 계시므로 우리의 알맞은 교사(a fit teacher)로서 경건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경건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¹⁴³⁾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educator)이시며 선생(teacher)이시며 그 분이 가르치시 고자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의 완전한 권능이다. 즉 하나님께서 만사를 최선의 경륜을 따라 정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침의 내용으로 하고 계신다¹⁴⁴⁾. 사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바로 하나의 교육과정이며,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인간에게 하나의 학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교육하고자 창조하셨으며 창조는 교육의 한 수단이다¹⁴⁵⁾. 이에 대해 칼빈은 “창조의 역사는 수많은 밝은 등불을 켜서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고 있다”¹⁴⁶⁾고 말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사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의 섭리의 과정을 확정해 놓으시고 매일같이 명백한 계시를 통하여 만민에게 무수한 수단을 다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되 의인에게는 관대함을 베풀어주시나 악하고 모독적인 자에게는 그의 엄위를 내리신다(롬11:22)···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죄인들을 자비로서 끈덕지게 추적하여 드디어는 그들의 죄악을 삼켜 버리고 부모의 애착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 주신다.”¹⁴⁷⁾ 교사이신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내와 온유로서 우리를 연단 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기력을 차 버리고 회개하도록 분발시켜 주신다¹⁴⁸⁾.

143. *Inst.*, I. ii. 1.

144. *Inst.*, I. v. 8.

145. Nels F. S Ferre,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es, 1967), pp.110-112.

146. *Inst.*, I. v. 14.

147. *Inst.*, I. v. 7.

특히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교사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들을 교육하고 계신다.

다음, 칼빈은 성부 하나님을 모범자로서 보았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시고 하나님의 품성의 객관적인 표현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며, 모든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똑같은 닮음이 된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 가야 할 표상이며 우리의 모범자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배운 첫 모범이었고¹⁴⁹⁾,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시는 모범자이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보여주신 모범자이셨다¹⁵⁰⁾.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범자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형성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구속(redemption), 대속물(ransom), 화해(propitiation)의 십자가를 지신 본을 보이셨다.

칼빈은 모범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첫 아들(His first-born)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다른 자녀들에게까지 적용시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 으뜸가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마3:17, 17:5), 이 세상에서 방종하거나 또는 안락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계속적인 십자가 연속의 생애에 불과하였다. 사도는 그 이유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했다’(히5:8)고 말하고 있다.”¹⁵¹⁾

148. *Inst.*, I. x vii. 8.

149. Nels F. S Ferre, *op.cit.*, p.115.

150. *Inst.*, III. viii. 3-4.

151. *Inst.*, III. viii. 1.

“우리가 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지배 가운데서, 순결은 그의 잉태 가운데서, 그 사죄는 그의 탄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구속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의 고난 가운데 있고, 만약 저주로부터의 면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요(갈3:13), 또 그의 만족은 그의 희생 제물, 그의 정결은 그의 피에 있으며, 또 화복은 그의 음부에 내려감에, 육신의 죽음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신생은 그의 부활에 있는 것이요, 또 불사의 삶을 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활에 있는 것이다. 또 하늘 나라 기업을 구하면 그가 하늘로 올라간 승천에 있으며, 보호와 안전과 모든 축복의 풍성한 활용은 그의 나라에 있는 것이요, 만약 심판에 대한 근심 없는 기대를 구한다면 그것은 심판할 권을 주신 그의 권능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종류의 좋은 것이 그 안에 풍성하게 축적되어 있으니 만큼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가 아니고 이 샘으로부터 차도록 마셔야 할 것이다.”¹⁵²⁾

셋째로, 칼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내적 교사로 보았다. 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유효하게 결합시켜 주시는 끈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인도하시는 내적 교사라는 것이다¹⁵³⁾.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을 내적 교사(the inner teacher)라 하고, 그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약속으로 침투되는데 그 약속은 이것 없이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또 우리 귀를 두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엡1:13)... 성령의 고유 목적으로서 그가 입으로 가르쳐 준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인식시키는 것에 돌리고 있으니, 그 이유는 만약 분별의 영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빛을 맹인에게 헛되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어 주는 열쇠라고 불러 마땅할 것이요(계3:7), 그의 비취심을 우리 정신의 안광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¹⁵⁴⁾

152. *Inst.*, II. x vi. 19.

153. *Inst.*, III. i. 1.

154. *Inst.*, III. i. 4.

즉 내적 교사로서의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주님에 관한 경외심을 베푸시며, 진리를 전해서 적용시키고, 모든 학습 환경 중에 도와주며 영적인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 보이신다¹⁵⁵).

2) 교사로서의 인간

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직접 우리들을 교육시키실 수 있지만, 인간을 들어 사용하셨고, 우리들에게 교회 안의 성직과 더불어 교사의 직분도 주셨다. 진리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직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칼빈은 교사의 직무를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네 가지 직무 중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교사의 중요한 위치를 잘 보여주었다.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의 올바른 치리를 위해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밀접히 연관된 질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이의 질서이다. 우리는 신학을 가르치는 이 직무 속에 신구약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먼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다양한 인간성을 전제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이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교회가 새로운 세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직접 봉사하는 일 뿐 아니라 건전한 시민 정부를 위해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¹⁵⁶).

교사의 직분에 대한 칼빈의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55. Roy B. Zuck,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p.31.

156. John Calvin,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1541, trans. by G. A. Taylor (Durham: Duke University, 1953), pp.14-15.

첫째로, 칼빈에 의하면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신적인 소명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활동 속에서 기쁨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 교장의 취임 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맹세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이 일, 곧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은 바 되었고 내가 믿는 이 일에 대해 나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엄숙히 맹세합니다.”¹⁵⁷⁾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교사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교육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일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며, 이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교사로서의 이 책임감은 또한 하나님과 학생 모두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진리의 원천이 교사 자신에게서 독창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교사는 항상 모든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교사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또한 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사의 직분을 받을 때 교사로서의 권한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사의 권한은 교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차적이고 파생적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권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⁸⁾.

157. John Calvin,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VIII, trans, by W. Stanford Reid (November, 1955), p.33.

158. 고용수, "칼빈의 교육 사상", 계명대학, 제7집(1992), p.95.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학생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릇된 길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시 강제적인 수단도 사용하여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을 하나의 절대적인 규범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다. 이 권한은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진리를 닦아 갈 수 있게 함으로서 자신의 총체적인 삶 속에서 진리를 포출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권한은 학생들이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교사가 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칼빈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듯이 학생과 부모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는 교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듯이 학생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며, 특히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함을 요구한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은 격려해 주고, 어려움에 있는 학생은 위로해 주고 도와주며, 약한 학생은 인내와 온유로 연단 시키고, 잘못된 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조심스럽게 징계하고, 돌아서도록 사랑으로 불러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교사에게 학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를 존중하게 여겨야 하며, 기계가 아닌 자유인으로 보아야 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함을 요구한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헤아릴 줄 알며, 그가 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리고 그의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해해 줄 줄 하는 교사이다.

이 관계는 또한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이 각기 지니고 있는 본연의 지위와 역할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는 “지도자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는 너무 친하게 사귀어서 그와 학생간에 유지해야 하는 일

정한 거리감을 잃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없이 그가 확신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¹⁵⁹⁾

셋째로, 칼빈은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듯이 교사는 학생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야 하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을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생관으로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용에 정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기술에까지 정통할 의무를 가지며, 그것은 어떤 선까지 달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교사는 또한 그가 가르쳐야 할 진리를 교사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화하여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감화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가 가르치고 있는 형식적인 내용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교사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 줌으로서 학생들을 어느 한 분야에서가 아니라, 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로, 칼빈은 교사의 가르침에 있어서 내적 교사이신 성령의 역할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교사의 직분을 인간에게 주신 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따라서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것이 되어 버린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충만한 지혜와 진정한 지혜를 주실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만 새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교육이 지향하는 변화와 성취를 이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침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고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159. Zweep, Wislenga, and Hulst, "The Teacher and Vitalized Teaching", in Jaarsma, 1953, p.423.

5. 교육의 대상

하나님을 교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피조계에서 유일한 학생이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바 특히 교육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이 비록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참된 교육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 만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이다¹⁶⁰).

먼저, 칼빈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 즉 인간은 존귀한 피조물로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을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과 위엄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로, 인간은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든 학생을 동등시해야 하고, 모든 학생의 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진심으로 우러난 인격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에 있어서 책임은 교사에게 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주요한 책임이 있다. 칼빈은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이 져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160.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고신대논문집, 제13집(1985. 7), p.86.

사실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의 학문 활동을 지도하게 위해 그가 제정한 규칙들에 나타난다. “해마다 5월의 첫째 날이 되기 전 3주동안 공적인 교수들 (public professors) 중 한 명은 순번에 따라 정오에 강당에서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불어로 어떤 주제 강연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 반별로 정렬해서, 자신의 능력껏 교수의 강의를 받아 써야 한다.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가서 즉시 책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5시간 안에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날 강의 내용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한다.”¹⁶¹⁾ 학생의 책임은 또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즉 학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은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 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설령 그의 지식에 교사의 지식보다 뛰어 난다 하더라도 항상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기본 입장을 지켜야 한다¹⁶²⁾.

넷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도덕성은 사회적 관계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데, 이는 개인 하나만의 독립된 생의 형태에서는 도덕이 필요 없고 또 성립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말이다. 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은 학생의 도덕성의 계도로 이룩되는 사회 적응성의 함양을 하나의 주된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¹⁶³⁾.

다섯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 자유를 통해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동한다. 학생은 단순히 그 속에 어떤 지식을 주입시켜 주는 기계가 아니다. 학생은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탐구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하고 또한 그 자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자유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모든 진리는 그 근원을 하나님

161. John Calvin,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op.cit., trans, by W. S Reid(1955), p.30.

162. 고용수, op.cit., pp.102-103.

163. 김용섭, op.cit., p.88.

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터득한 진리는 생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영혼은 불멸적이고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로서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 말은 가끔 영(spirit)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영은 오성(또는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었다.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던가 시인하지 않던가 하는 것이고,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선택하고 추구하며, 오성이 거부하는 것은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다¹⁶⁴). 사람의 영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행동의 출처이다. 인간의 모든 결정은 이 영에서부터 나오며, 이 영이 곧 인간의 모든 사고와 정서와 행동과 생 전체를 결정하는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바로 이 영을 변화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가지는 칼빈은 비록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었지만 이를 단순한 기계론적 이분법으로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엄밀히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인간 존재를 하나의 전인으로서 파악했다¹⁶⁵).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그는 전인으로서 인간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였다. 이 타락은 전적 타락으로서 전 인류에 그 저주가 미쳤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그에게는 악을 택할 자유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성경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죄인이라고 말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하였나이다”(시51:5)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164. 이 부분은 “칼빈의 인간관”을 참고하라.

165. 김용섭, *op.cit.*, pp.89.

부터 악함이라”(창8:21)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2:3)등 성경의 말씀들은 인간 본성이 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느 부분이 남아 있다. 칼빈은 이 주장을 영적 은사와 자연 은사로 설명하였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영적 은사는 소멸되었고, 자연 은사는 부패하였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 은사로서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 때문에 인간은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력하지만, 땅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사회 생활을 육성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학술과 공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적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나름대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¹⁶⁶).

그러나 이런 교육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다. 왜냐 하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숭배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사탄을 위하게 된다. 중립적인 인간은 없으며, 중립적인 활동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진행하는 모든 활동은 교육을 포함해서, 아무리 선하게 할 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사탄적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교육도 헛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속이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가능성을 허락하셨다. 구속의 희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어졌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동시에 구속받은 인간은 더 이상 사탄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활동도 사탄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166. 이 부분은 “칼빈의 인간관”을 참고하라.

되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교육도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칼빈에 의하면 교육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새롭게 하고 계발, 연단하여 그의 생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의도적인 작용이다¹⁶⁷⁾. 즉 진정한 교육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V. 칼빈의 교육 활동

1. 목회를 통한 교육 활동

1) 설교를 통해 본 칼빈의 교육 활동

1536년 제1차 제네바 목회를 시작할 때 칼빈은 단지 파렐의 조수로서, 그리고 성경 교사로 초빙을 받았다¹⁶⁸⁾. 그는 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만 제네바 시의 교육 문제에만 관계하였다. 로잔느회의이후 정식으로 목사가 된 칼빈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였다. 성경의 계속된 강해가 곧 그의 설교였다.

칼빈에 의하면 설교는 항상 성경에 정식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하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성경의 주해이어야 한다. 그는 많은 초대 교부들의 예를 따라 매 주일, 혹은 매일 성경의 전권을 한 권씩 차례로 설교해 나갔다.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와 성 삐에르(St. Pierre) 교회에서 첫 주일을 맞이할 때, 칼빈은 지난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당할 때 멈추었던 그곳에서부터 다시 강해 설교를 조용

167. 김용섭, *op.cit.*, p.87.

168. 전경연, *op.cit.*, p.41.

히 시작하였다¹⁶⁹).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칼빈이 그의 설교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를 알 수 있다.

칼빈은 주로 성 삐에르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주일 아침과 오후, 평일에는 월, 수, 금요일에 설교하고, 주일 낮에는 요리 문답을 가르쳤다. 주일 아침에는 신약을,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월, 수, 금요일에는 구약을 강해 했다¹⁷⁰). 이렇게 매일 설교로 “교훈 받고, 훈계 받고, 권면 받고, 책망 받은” 제네바인들은 초대 교부 시대 이후로 유럽의 어느 회중도 받지 못했던 기독교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¹⁷¹).

2) 의회 문서를 통해 본 칼빈의 교육 활동

제네바 교회의 의회 문서들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들에는 대체로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문”(Articles on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 1537), “신앙고백서”(The Confession of faith, 1536), “교회 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 “순회 규칙”(Order of Visitation of the country churches, 1546), 그리고 “교회의 감독을 위한 법률”(ordinances for the supervision of church in the country, 1547)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¹⁷²).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문”

로잔느회의로 인해 제네바시 목사회의 정식 회원이 된 칼빈은 파렐과 함께 제네바시의 개혁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의 제네바는 비록 헌법상으로는 복

169. T. H. L. *op.cit.*, pp.186-187.

170.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72), p.36.

171. T. H. L. Parker, *op.cit.*, p.189.

172. 강용원, “칼빈의 교육 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장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8, pp.12-13.

음주의 도시가 되었지만¹⁷³⁾ 복음주의적 신앙이 제네바에서 설교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도 많은 로마 카톨릭이 남아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제네바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개혁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고 신자의 훈련을 엄격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1537년 1월 16일에 파렐과 함께 의회에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문”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문은 크게 권징을 통한 훈련, 시편의 찬송, 자녀의 교육 문제, 혼인 등 네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권징을 통한 훈련에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교회 생활 질서를 확립하고 그들을 복음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고(로마 카톨릭 제도하에서는 일년에 두 세번밖에 성만찬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후에 한달에 한 번씩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며, 신앙고백을 제출하여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지키겠다고 서명해야 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출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¹⁷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되어 왔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칼빈은 세 번째 조례에서 자녀의 교육 문제를 다루었다. 칼빈은 어린이들도 역시 교회에 대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옛날에는 일정한 요리 문답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체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이 기독교를 선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형식이 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이 요리 문답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받아 그들이 세례 받을 때에 증거할 수 없었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신앙과 고백을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옳

173. T. H. L. Parker, *op.cit.*, p.128.

174. T. H. L. Parker, *op.cit.*, pp.138-139.

다고 말한다. 만일 이 규례가 언제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도 당시 제네바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전연 용납되어 질 수 없는 미개성과 무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간결하고도 단순한 요약을 작성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일년의 일정한 절기에 목사 앞에 나와 문답을 하고 시험을 받으므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정받아야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부모들을 명하여 인내와 권면으로 저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요약들을 배우게 하며 지정된 시기에 목사들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¹⁷⁵⁾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간결하고도 단순한 요약이 곧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a brief and simple summary of the Christian faith)이다. 이 책에 관해서는 칼뱅의 저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신앙고백서”

21개조로 구성된 이 고백서는 제네바의 모든 시민과 거주자들이 지킬 것을 서약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1536년 11월 10일에 의회에 제출하였다. 당시의 제네바 시는 비록 헌법상으로는 복음주의 도시가 되었지만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고, 복음주의 신앙은 아직 많은 시민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시민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주의적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의회의 회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 고백서를 지킬 것을 서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서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출교

175.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with Instructions and Notes by J. K. 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proposed by the Ministers at the Council, January 16, 1537”, pp.54. 이하 *Theological Treatises*로 함.

시키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또한 어린이들도 교회의 동등한 회원으로 보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교육과 훈계로서 지도해야 하며, 신자들 사이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징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⁷⁶). 이 고백서는 올바른 신앙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하려는 칼빈의 노력과, 시민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통일시킴으로서 정치적인 통일을 가져오려는 그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 헌법”

1541년 9월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칼빈은 새로운 기분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제네바에서의 그의 표어는 “자유·질서·훈련”이었다¹⁷⁷). 질서 있는 교회의 건설을 위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교회 헌법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11월20일에 “교회 헌법”이 법으로 통과되었다. 교회에서의 삶 전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 법은 비록 목회적 기능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직분에 관한 언급이었다. 질서 정연한 교회에는 목사(pastors), 교사(doctors), 장로(elders), 집사(deacons) 등 네 가지 직분이 있다¹⁷⁸).

목사의 첫 번째 직무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이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¹⁷⁹). 칼빈 자신이 목사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행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날마다 찾아

176. 강용원, *op.cit.*, pp.20-21.

177. 이종성, *op.cit.*, p.42.

178. T. H. L. Parker, *op.cit.*, pp.172-173.

179. *Ibid.*, p.184.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옹계 이해시키고자 함에 있었다¹⁸⁰). 목사는 목사들의 모임에서의 선거와 의회의 비준에 의해 성직에 취임한다. 목사들은 또 성경 연구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해 주기 위해 일년에 네 번씩 모여야 한다.

신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교육시키기 위해 칼빈은 교회의 직분에 교사의 직분을 포함시켰다. 신학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언어학과 인문학이 필요했기에 이 학문은 가르치기 위해 남학교와 별도의 여학교에 학교 선생과 보조 교사들이 임명되어야 하였다. 이 교사와 교사들은 상당한 교육을 거친 자라야 했고, 가르치는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교회 훈련과 교육의 주체로서, 엄밀한 시험을 통과한 후 목사의 재가를 받아야 임명되었다¹⁸¹). 교사의 직분에 대해 울리히(Robert Ulic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칼빈은 교육을 영적인 질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임명에는 목사의 동의가 따라야 했다. 학교는 무지함이나 거짓된 교리에 의하여 복음의 순수함과 교리의 건전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는 배움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¹⁸²)

다음으로, 이 헌법은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목사와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³). 즉 학교의 건립은 성직자의 양성과 건전한 시민의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180. De Jong, Peter Y, “기독교 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김득용 역, 신학지남, 147(1969. 12), p.48.

181. 전경연, op.cit., p.54.

182. Robert Ulich,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p.123.

183.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63.

세 번째로, 이 헌법은 자녀들에게 요리 문답을 교육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매 주일 정오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요리 문답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엄숙히 고백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⁸⁴).

위의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어린이 교육을 포함한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였던 신본주의적 교육실천가였음을 알 수 있다.

2. 저술을 통한 교육 활동

칼빈은 일생 동안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다. 여기서는 그의 가장 훌륭한 저서이자, 개혁주의 신교의 대전인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및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독교강요

니콜라 콕(Nicholas Cop)의 연설 사건으로 인해 파리에서부터 망명의 길을 떠난 칼빈은 바젤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유혹자라고 부당하게 비난받고 고난 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참된 교리를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 변호하기 위해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쓰기 시작했다¹⁸⁵).

184. 강용원, *op.cit.*, pp.18-19.

185. Jean Cudier, *op.cit.*, p.73.

“기독교강요”의 초판은 1536년 3월에 바젤의 출판사에서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내용은 제1장 율법, 제2장 신조, 제3장 주기도, 제4장 성례, 제5장 거짓된 성례, 제6장 기독교자의 자유 등 6장으로 되었다. 제2판도 라틴어로써 1539년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되었다. 내용은 초판의 제1장을 1장과 2장으로 나누고, 제2장은 회개, 신앙, 칭의, 예정, 섭리의 각 장으로 나눔으로서 11장으로 확대하였다. 2판은 1541년에 불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제3판도 라틴어로써 1543년에 출판되고 불어 번역은 1545년에 출판되었다. 내용은 제2판에 맹세, 인간의 전망, 교회 권한, 교회 조직 등 4장을 증보하여 합 21장이 되었다. 제4판 라틴어 판은 1550년, 불어 번역판은 1551년에 출판되었다. 성경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 숭배, 형상 숭배에 관한 것을 논박하고 인간 양심을 해설한 것이 증보되었다. 제5판 라틴어 판은 1559년, 불어 번역판은 1560년에 출판되었는데 그의 필생의 결정판이다. 결정판은 전 4권, 전 80장이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 제2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로서의 신지식, 제3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제4권- 교회, 은혜의 방편, 국가 정부 등이다. 이 결정판은 영원한 기념판으로서 개혁주의 신교의 신학적 대전(Theologica Summa)이라 할 수 있다¹⁸⁶).

이처럼 방대한 저서를 칼빈은 어떤 목적으로 저술하였는가? 칼빈은 이 저서의 첫 머리에 있는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그의 저술 목적을 밝히 말하고 있다. “폐하시여! 내가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후에 폐하게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의도한 바는 다만 기초적인 원리들을 약간 기술하여 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특질이 무엇인가 함을 배우에 하려는 데 있었나이다. 그리고 이 책은 주로 나의 동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썼사온데, 그들 중에는 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심히 많사오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는 지식을 소유한 자는 극히 적은 것을 알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붓을 든 의도라는 것은 이 책 자체가 증명하는 대로, 그 내용이 단순한 방법과 아무 수식이 없는 문

186. 이근삼, *op.cit.*, pp.46-48.

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페하의 나라에서 어떤 사악한 자들의 광포함이 극도에 달하여, 이 나라에서는 건전한 교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나의 지식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며, 나의 신앙 고백을 페하에게 보여 드릴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나의 노력은 유용하게 바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페하께서는 현재 불과 검으로 나라를 소란케 하고 있는 그 광인들에게 광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이 교리의 성질이 무엇임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 하나이다.”¹⁸⁷⁾

여기서 칼빈의 저술 목적이 두 가지임을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그 둘째는,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인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중요함을 볼 수 있다. 이 첫째 목적은 역시 이 저술의 첫 머리에 있는 “독자에게 드리는 글- 존 칼빈”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본서에서 내가 목적인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하며 아무 장애 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의 개요를 개진하였고 또 그러한 순서대로 그것을 배열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만 하면 성경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성경에 포함한 내용을 어떤 목표에 귀착시켜야 하는가를 결정짓는데 어떠한 곤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⁸⁸⁾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이 기독교를 탐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본서를 저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 후 며칠만에 이 제네바 교회의

187. *Inst.*,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 p.9.

188. *Inst.*, “John Calvin to the Reader”, pp.3-4.

요리 문답을 작성하여 1541년 11월말에 발간하였고, 헌정사를 포함한 라틴어 판을 1545년에 발간하였다. 칼빈은 어린이들이 이 요리 문답과 훈련을 따를 것을 거부하면 사역을 맡고 싶지 않다고까지 하였다¹⁸⁹⁾.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의 전신은 1537년 칼빈이 작성한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라는 소책자였다. 칼빈은 제1차 제네바 목회시기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 책자를 작성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공부해서 정기적으로 목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537년의 것은 문답식이 아닌 발제의 형식으로 되었고, 율법, 신앙, 기도, 세례, 성만찬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1541년의 것은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대화 식으로 되었고, 그 순서도 신앙, 율법, 기도, 성례 전의 순서로 바뀌었다¹⁹⁰⁾.

이 문답서는 55단원으로 나뉘어져 55주일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총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다. 이 문답서는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을 뛰어넘어 설명하는 하나의 해설서이고 교리서이며, 또한 어린이보다는 청년들의 지적 수준에 적용된 하나의 교육적 저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¹⁹¹⁾.

이 요리 문답의 서두에서 칼빈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앎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를 포함한 경건의 앎이다.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 곧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웅섭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인식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인식이 있으므로 비로소 교육이 가

189. Jean Cudier, *op.cit.*, p.134.

190. *Ibid.*, p.132.

191. *Ibid.*, p.134.

능하고 교정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교육은 결코 지식이나 학문의 퇴적은 아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신앙자의 형상을 의미한다. 즉 그의 교육은 인간의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정의 활동도 요구한다. 그것은 앎을 통하여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 전 심정과 심의를 총 발휘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심지적인 훈련인 것이다... 칼빈이야말로 앎을 고조하는 이지인이었을 뿐 아니라 영혼의 지도자요, 기도의 교사요, 양심의 스승이었다 할 것이다.”¹⁹²⁾

이상에서 우리는 저술 활동을 통해서 칼빈이 보여준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칼빈의 노력, 그리고 목사와 아동간의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화식 교육 방법과 그 교육 목적 등을 살펴보면서 저술 활동을 통한 칼빈의 교육적 관심을 살펴보았다.

3. 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제1차 제네바 목회 시기부터 칼빈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 건립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1538년 1월 12일에 칼빈은 코디에(Cordier)와 사우니에(Saunier)와 함께 제네바의 공립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Plan for the schools of Geneva: Genevae Ordo et Ratio Docendi in Gymnasio)-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의 요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되고, 인문 학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문 학과를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고, 둘째로, 제네바의 학교는 성직자를 위한 준비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192. 정웅섭, “칼빈의 청소년 교육과 그 이념”, 한국신학대학보, 제3집(1957. 7), p.104.

비단 교직자의 양성 뿐 아니라 시민 교육을 증시하였다¹⁹³).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동안에 칼빈은 스트룸(Strum)으로부터 학교 건립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다. 1556년의 스트라스부르그 방문중에서도 학교 건립에 관한 많은 영감과 예증을 얻었다¹⁹⁴). 1541년 제네바에 돌아오자마자 칼빈은 학교 건립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교회 헌법”에서도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 건립의 계획은 계속 지연되다가 1558년 1월에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었고, 1559년 6월 5일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Schola Privata와 Schola Publica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는 대학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는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등 7개 교과과정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대학교에 해당되는데 신학, 히브리어, 헬라 시와 철학, 변증법과 수사학, 물리학, 수학 등의 교과과정을 설치하였다. 의학 강의도 몇 개 있었고, 후에는 시민법 강의도 있었다¹⁹⁵). 이 아카데미의 설립 목적에 대해 칼빈은 정부 관리를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⁹⁶).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로,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 졌다는 점인데, 이는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사에 학급편성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물려주었다¹⁹⁷). 다음으로 이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건립된 이래로 프랑스 전역과 전 유럽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개혁주의 교

193. 이 문서는 A. L. Heminjard의 9권으로 된 책 *Correspondance des Reformateurs* (제네바, 1866-97)의 제4권 pp.455-460에 수록되어 있다.

194. J. Chr. Coetzee, "Calvin and the School"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p.198, 강용원, *op.cit.*, p.35에서 재인용.

195. T. H. L. Parker, *op.cit.*, p.253.

196. *Opera Calvini(Corpus Reformatorum)* 10a, 21; *Theological Treatis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62-3, T. H. L. Parker, *op.cit.*, p.253에서 재인용.

197. 손인수, 정재철, *서양 교육사*(서울: 교육 출판사, 1967), p.88.

회의 역군으로 피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저자 중의 하나인 올레비아누스(Olevianus), 네델란드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생트-알데공드(Sainte-Aldegonde)와 마르닉스(Marnix), 옥스퍼드 브들레앤느 도서관을 설립한 토마스 보들리(Thomas Bodley), 제2세대 칼빈주의 신학자인 랑베르 다노(Lambert Daneau),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John Knox) 등이 있다¹⁹⁸. 실로 이 아카데미는 세계의 개혁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길러 내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¹⁹⁹. 남아 공화국 포츨스트룸대학교 교육학 교수였던 꾸찌에(Coetzee)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가리켜 “신정 국가를 세우려는 칼빈에게 있어서 면류관과도 같은 성취였다”고 말하였다²⁰⁰.

198. Jean Cudier, *op.cit.*, p.190.

199.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1), p.164.

200. J. Chr. Coetzee, *loc.cit.*, 강용원, *op.cit.*, p.36에서 재인용.

VI. 결론

칼빈은 16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저술가, 정치가인 동시에 또한 그 시대의 유명한 교육 실천가였다. 이에 대해 칼빈 자신도 교사로서의 직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칼빈은 비록 그 교육 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일을 실천적으로 감당한 교육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의 교육 활동과 저술, 및 그의 신학 사상에서 그의 교육 사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칼빈의 교육 사상의 기초가 되는 신학 사상과 교육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가르치는 교사, 교육의 대상 등 면에서 칼빈의 교육 사상을 탐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에 칼빈의 사상을 소개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것이기에 칼빈의 생애, 신학 사상, 교육 활동도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칼빈의 신학 사상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이러한 칼빈의 하나님 중심 신학 사상은 신관, 인간관, 성경관, 교회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두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두 지식은 어느 쪽이 먼저이고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 내는지를 식별하기 어렵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칼빈은 또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체 안에 거하시는 세 위격이라고 하였다. 칼빈의 신관은 또한 교육적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교사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교사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범자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교사라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교육 대상이 되는 인간을 창조, 타락, 구속의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완전함으로서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죄가 인간 전체를 전복시켰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일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를 가졌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느 부분이 남아 있었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영적 은사는 소멸되었고, 자연 은사는 부패했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성 은사는 남아 있었다. 때문에 땅의 일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중에서 값없이 구속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시고,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증보자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이 있고 그리스도는 구속을 받은 우리가 닮아 가야 할 표상이다.

칼빈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성경의 권위에 대해, 로마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당시의 그릇된 생각을 반격하고 성경의 내적 증거를 강조하였다. 칼빈에 있어서 성경은 또한 우리의 교과서이기도 하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았다. 이 교회는 가건적 교회와 불가건적 교회로 구분되는데 불가건적 교회는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 가건적 교회는 지상의 교회로서, 칼빈은 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로 비유하여 교회의 중요성과 교육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학으로서 하나님 중심 사상은 정치 경제 등 그의 기타 모든 사

상의 근본이 된다.

칼빈의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칼빈의 교육 사상을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교사, 학생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칼빈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칼빈의 이 교육 목적은 매우 총괄적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된다. 이 교육 목적은 또한 학생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문화적, 직업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적인 교육은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다. 때문에 교육의 내용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칼빈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과서로 보았다. 그는 또한 진실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과목을 다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는 성서의 빛에 의하여 해석되어진 인간의 축적된 문화 활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커리큘럼 곳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통일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조명 아래 항상 새로운 자료의 총괄성을 향해 계속 열려져 있어야 한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칼빈은 독창적인 방법보다는 당시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랐다. 그러나 그는 절대적인 교육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한 방법이 교육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행동 법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교사에 있어서 칼빈은 먼저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교사로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모범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내적 교사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교사는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과 학생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학생과의 관계에 각별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열망하여야 한다.

학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이며,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 또한 인간은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며 동시에 책임성, 도덕성과 자율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학생은 하나의 전인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학생들의 삶에 근본적이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칼빈의 교육 활동을 고찰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목회, 저술, 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목회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는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설교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가 작성한 제네바시 의회 문서를 통해 나타난 칼빈의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설교는 성경의 계속된 강해이다. 그의 설교를 통해 제네바인들은 매일 교훈 받고, 훈계 받고, 권면 받고, 책망 받음으로써 초대 교부 시대 이후로 유럽의 어느 회중도 받지 못했던 기독교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의회 문서들은 주요하게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문”, “신앙 고백서”, “교회 헌법” 등으로서 이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어린이 교육을 포함한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였던 신본주의적 교육 실천가였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의 저술에서는 중요하게 그의 대작인 기독교강요와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쓴 목적은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기독교를 탐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본서를 저술하였다. 제네바 교회의 요리 문답은 어린이를 위해 쓴 것으로서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아동 교육에 대한 칼빈의 관심과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그의 노력을 볼 수 있다.

학교 건립을 통한 교육 활동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건립과 그 운영 방식을 살펴보았다. 제1차 제네바 목회 시기부터 칼빈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 건립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오랜 세월의 노력 끝에 1559년 6월 5일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이 아카데미의 특성은 첫째로,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고, 둘째로,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칼빈의 이런 구체적인 교육 활동들은 교육 실천가로서 일생을 보낸 칼빈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칼빈의 교육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등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칼빈의 교육 사상에 기초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론적인 개혁주의 교육 사상을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저서

- 김수진, John Calvin의 교육사상연구, 서울: 을지사, 1986.
- 손인수, 정재철, 서양교육사, 서울: 교육출판사, 1967.
- 엘머 L. 타운즈, 인물중심의 종교교육사, 임영금 역, 서울: 대예장총회교육부, 1984.
-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72.
- 이근삼 외,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1884-1984),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신대 출판부, 1984.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 신교출판사, 1959.
-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_____,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_____,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8.
- 정정숙,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출판부, 1983.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7.
-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91.
- A. Dakin, Calvinism, 이병섭 역, 칼빈주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6.
-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Grand Rapids: Baker, 1974.
-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1.
- C. Jaarsma,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Grand Rapids: Eerdmans, 1935.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Elmer L. Towns ed.,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Grand Rapids:
Baker, 1975.

E. Palmer,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박일만 역, 칼빈주의 5대 교리,
서울: 성광 문화사, 1982.

H. Henry Meeter, Cavinism, 김진홍, 박윤선 공역, 칼빈주의, 부산: 성문사,
1959.

_____,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alvinism, 신복윤 역,
칼빈주의근본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90.

H.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영음사, 1972.

Hunter, A. Mitchell The Teaching of Calvin, N. J. Westwood: Fleming
Revell Company, 1950.

Jay Green, Calvinism: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정성구 역, 칼빈
주의 어제, 오늘, 내일, 서울: 세종문화사, 1977.

Jean Cudier, Calvin, I'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
님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John Calvin,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1541, trans. by G. A. Taylor,
Durham: Duke University, 195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Henry Beveridge,
Michigan: Ee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신복윤, 이종
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_____, Calvin's Commentary, 성서교재간행사, 공관복음, 1982.

_____, Commentary on Corinthians, 성서교재간행사, 고린도전서, 갈

- 라디아서, 1982.
- _____, Commentary on Genesis, 성서교재간행사, 구약성서주석 1,
창세기, 1982.
- _____,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성서교
재간행사, 요한복음 1, 1982.
- _____, The Order of the College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XVIII, trans, by W. Stanford Reid, 1955. 11.
- _____, Theological Treatises, trans. with Instructions and Notes by
J. K. S. Rei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 John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6.
-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정성구·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 Nels F. S Ferre,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es, 1967.
- Paul Helm, Calvin and the Calvinists, 서종대 역,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Richard Stauffer, L'humanite de Calvin, 박건택 역, 남편·아버지·친구·목회
자로서의 인간칼빈,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Robert Ulich,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 Roy B. Zuck,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72.
- R. Stauffer, L'humanite de Calvin, 박건택 역, 인간 칼빈,
서울: 정음 출판사, 1983.
- Samuel Dunn, The best of John Calvin, 김득용 역, 요한 칼빈의 신학진수-
주석과 설교집에서 발췌-,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S. Kistemaker, Calvinism, History-Principles-Perspeetive, 김정훈 역, 칼빈주의, 서울: 성광 문화사, 1982.
- T. H. L. Parker, John Calvin,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_____, Portrait of John Calvin, 김재준 역, 칼빈의 모습,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0.
- Wendel Francois, Calvin,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약서론, 칼빈총서 1, 기독교문화협회, 1981.
- Wilhelm Ni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2. 논문 및 간행물

-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장신대 석사논문, 1978.
- 고용수, “칼빈의 교육사상”, 계명대학 제7집, 1992, pp.80-114.
- 곽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칼빈의 성서관-”, 교회와 신학, 제4집 (1971. 5), pp.168-187.
- 권명수, “존 칼빈의 목회 훈련에 관한 연구”, 한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4.
- 김남식, “칼빈주의 문화관”, 신학지남, 158(1972. 9), pp.131-134.
- 김대식, “칼빈의 교회관”, 한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5.
- 김민관, “칼빈사상과 칼빈주의: 동일성과 상이성”, 고신대학원 석사논문, 1993.
- 김영의, “칼빈의 공헌”, 신학세계, 1936. 11, pp.64-70.
- 김용섭,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교육목적, 교사-학생관을 중심으로-, 고신대논문집 제13집, 1985, pp.69-93.
- 김의환, “칼빈의 성서관”, 신학지남, 152(1971. 3), pp.20-27.
- 김인영,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 신학세계, 1924. 9, pp.40-44.

- 김찬국, “칼빈의 신관”, 신학논단, 1(1953. 7), pp.14-30.
- 김희사,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기독교교육의 이념적 실체연구”, 총신 제 13호, 1990, pp.54-70.
- 노영근, “칼빈주의에 입각한 John Dewey의 교육사상 연구”, 총신대 석사논문, 1984.
- 노의일, “칼빈의 교육사상이 서구 근대사회의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4.
- 노종숙, “요한 칼빈의 인간이해”, 한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문동환, “요한 칼빈의 교육관”, 기독교교육 7(1965. 3), pp.22-26.
- 석태운, “칼빈의 교육사상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7.
- 신복운, “칼빈의 교회관”, 신학지남, 183(1979. 봄), pp.39-52.
- 신영일, “John Calvin의 생애와 저작”, 신학논단, 1(1953. 7), pp.3-13.
- 심은실,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칼비니즘이 우리 나라 초창기 교육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원 교육학 석사논문, 1981.
- 오병세, “칼빈주의 교육관”, 김남식 편저,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함출판, 1972, pp. 25-29.
- 윤두호,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교육사상 비교연구”-인간관, 성서관, 교육관을 중심으로-, 장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 이근삼, “칼빈주의 문화관과 학문론”, 기독교교육연구시리즈 4, 1988.
- _____, “칼빈주의와 학문”, 개혁주의 3(1964. 4), pp.22-27.
- _____, “칼빈의 교회론”, 교회문제연구, 제1집(1979. 12), pp.6-19.
- 이규현,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독교 정당화 고찰”, 총신대 석사논문, 1989.
- 이성모, “칼빈의 인간이해와 근대 시민 사회”,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61.
- 이수영, “인간 장 칼뱅”, 교육교회, 제106권 1984. 10, pp.655-660.
- _____, “칼뱅”, 빛과 소금, 창간호(1985. 4), pp.104-106.
- _____, “칼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 제2호(1985. 5), pp.118-120.
- 이영희,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1.

- 이용삼, “칼빈의 인간이해”, 연세대 연신원 석사논문, 1969.
- 이원걸, “칼빈의 교회론”, 한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3.
- 이종성, “칼빈의 생애와 그의 위치”, 전통과 혁신, 세종문화사(1973), pp.264-281.
- 이종찬, “갈뱅의 인간이해와 기독교교육”, 장신대 석사논문, 1986.
- 장화선, “John Calvin의 인간이해와 교육”,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 잭 웬네마, “What is education that is Christion?”, 김성수 역, “기독교교육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교육시리즈 5, 1988.
- 정두섭, “교육신학의 관점에서 본 John Calvin의 제네바 개혁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 정용섭, “칼빈의 청소년 교육과 그 이념”, 한신대학보, 제3집, 1957.
- 정정숙, “칼빈의 교육사상 연구”(1-3), 신학지남, 198(1983.여름), pp.180-195; 199(1983.가을), pp.176-196; 201(1984.춘하), pp.205-219.
- 하해룡, “칼빈의 성서이해”, 연세대 연신원 석사논문, 1968.
- 허순길,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고신대학보(1974. 12), pp.10-12.
- 황성철,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 연구”, 총신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9.
- Peter Y, De Jong, “기독교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김득용 역, 신학지남, 147(1969. 12), pp.44-50.